

# INTERVIEW

## 01 공익활동 이야기

### 최초의 수용자 자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용역팀과 향후 과제를 논하다

연구용역팀  
성결대학교 신연희 교수, 한세대학교 박선영 교수,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 대표, 최경옥 박사,  
법무법인 지평 여연심 · 최명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 최초록 변호사  
진행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

지평과 두루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과 한 해 동안 수용자 자녀의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용자 자녀의 인권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연구로 전국의 수감자에 대한 전수조사, 수용자 자녀 심층면접조사, 국내·외 법제도현황과 국제인권규범 검토 등을 통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권실태를 알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연구용역팀의 일원인 세움의 이경림 대표, 최경옥 박사,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 지평의 최명지 변호사에게 연구의 의의와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 수용자 자녀의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용역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이경림** : 세움이 2015년 설립된 후, 같은 해 11월 수용자 가족 지원 단체를 초청하여 한일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언론에서 주목하여 이듬해 기획 기사가 연재되었고, 이를 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평이나 두루는 이미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을 사업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었고, 특히 강정은 변호사가 수용자 자녀의 비행 사건을 적극적으로 맡아 주어서 신뢰를 가지고 함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옥** : 연구용역 시작 전부터 수용자 자녀 인권옹호와 관련해서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맡게 되면서 이 모임이 자연스럽게 연구진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강정은**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과 정책 모니터링 자문을 하면서,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이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수용자 자녀 인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살펴보니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단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움과의 귀한 인연으로 용역에도 참여하게 되었네요.

### 이번 연구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경림** : 최초로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공식적으로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니다. 또, 수용자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로 객관적인 통계를 도출했다는 의미도 있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최경옥** : 10년 전부터 관련 문제를 연구해온 학계, 민간 단체인 세움, 법률전문가인 지평과 두루가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네요.

**최명지** :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용자 자녀와 아동의 권리라는 시각에서 부모의 수감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서 특별했어요. 수용자 자녀의 복지에 힘쓴 민간단체와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 사례, 고충, 시범적인 조치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덕분에 문제의식도 고취되었습니다.

**강정은** : 이번 연구에서도 밝혀졌지만 수용자 자녀에 관한 우리나라 법과 정책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동안 '잊혀진 피해자'로 존재했던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세움과 지평, 세움과 두루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최경옥** : 세움은 이번 연구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에 관한 활동을 해 나갈 겁니다.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실무자나 교정기관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해요. 특히 지평과 두루에서 해외 사례 연구와 변호사의 시각에서 현행법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여 주었는데, 계속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경림** : 이번 연구는 수용자 가족에 대한 최초의 연구였다 보니 과제나 역할을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서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권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예정이에요. 지평과 두루도 법률적인 측면을 함께 모니터링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강정은, 최명지** : 네, 저희도 관련 법령의 통일적인 정비와 함께 해외의 선진적인 제도들이 향후 구체적인 입법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사례에서 도출되는 제도의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그 고민들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INTERVIEW

## 02 공익활동 이야기

### 자녀와 함께 하는 공익활동에 대해 듣다



법무법인 지평 인사총무팀 **천춘미** 부장, 아들 **최홍원** 씨  
진행 법무법인 지평 **김하영** 변호사

**지평 인사총무팀 천춘미 부장과 아들 최홍원 씨(대원고등학교 2학년)는 다수의 공익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공익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들어 보았습니다.**

홍원 씨는 지평과 어떤 공익활동을 하였나요?

**최홍원** : 초등학교 때 엄마를 따라 아름다운가게 자원활동에 참여한 후, 정기적으로 빵 만들기, 연탄나눔 자원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오미자를 수확했고요. 처음 시작은 어렸을 때였으니까, 엄마랑 놀러 가서 형 누나들 활동하는 것을 구경하며 같이 뛰어노는 정도였고, 중학교 때는 학교 의무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좀 나갔는데, 언젠가부터 친구들을 이끌고 참여하는 등 점점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천춘미 부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공익활동 제안을 하셨나요?

**천춘미** : 외동아들인 홍원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진학했을 때, 공익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길러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이가 욕심쟁이가 안 되었으면 한다. 공익활동을 곁에서 보고 익히며 자연스럽게 나눔을 배워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에 같이 가보자고 권유했어요.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었는지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스스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의 삶 속에 공익활동이 잘 스며드는 것 같아 대견하고 기쁩니다.

공익활동을 하며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기억에 남는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최홍원** : 중학생 때 엄마랑 빵 만들기 봉사에 참여했는데요. 제가 만든 빵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져가시는 모습과 그때 느껴졌던 뿌듯한 감정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때부터 공익활동이 진심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평과 함께한 공익활동이 홍원 씨의 꿈을 이루는데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었을까요?

**천춘미** : 저는 연탄 나르기 봉사가 기억에 남아요. 연탄 봉사는 추울 때 하잖아요. 그때 홍원이 밝은 모습으로 참여하고, 주민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시키지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돕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아들이 무언가 진지하게 행동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장면이 기억나요.

**최홍원** : 저는 언론인, 그중에서도 기자가 되고 싶어요. 기사는 사회를 잘 알아야 하고, 먼저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평과 함께한 공익활동에서는 사회의 음지, 우리 공동체가 개선할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익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윤희근 과장  
진행 법무법인 지평 **장품** · 김승현 변호사

노숙인 무료급식 봉사활동 4회, 봄 농촌봉사활동, 지평과 함께하는 아름다운가게 자원활동, 관악산 산 정화 활동, 거례열 학교 놀이공원 나들이 자원활동, 가을 농촌봉사활동, 사랑의 연탄나눔 자원활동. 2017년 한 해 동안 윤희근 과장이 맘을 흘리며, 칼바람을 맞으며 숨 가쁘게 지리했던 따스한 현장입니다. 2017년 지평의 봉사활동왕 타이틀을 거머쥔 윤희근 과장을 만나, 꾸준한 공익활동 비결을 들어보았습니다.

올해 참여한 여러 공익활동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거례열학교 학생들과 놀이공원 나들이를 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기도 하고, 한국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남쪽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생 두 명과 함께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놀았는데, "삼촌, 삼촌" 하면서 저를 잘 따랐어요.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개구쟁이 아이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그 또래였던 시절도 떠오르고, 조카 같기도 해서 눈에 밟혔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생각이 많이 남지요.

공익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지평에 입사하면서 공익활동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봉사활동을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지평의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유행팀에서 이미 공익활동을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셨던 오세훈 차장님 등 동료들의 영향도 있었고요. 한번 참여했다고 그만할 수도 없고, 공익활동 조끼도 받은 김에 계속해서 하게 되었지요.

공익활동을 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 제가 참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변호사님들, 각 행사를 주최하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자리에 잠시 다녀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녀오고 나면 맘을 흘려서 기분도 좋고, 다른 직원들과 친해질 수도 있어서 좋습니다. 제 딸아이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아빠한테 상도 주니,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윤희근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익활동'이란?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왕'이라는 과분한 상도 받았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할 일'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사실 지평에 저보다 훨씬 공익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열심히 아자!

# INTERVIEW

## 03 공익활동 이야기

### '올해의 봉사활동왕' 윤희근 과장의 공익활동을 듣다



# INTERVIEW

## 04 공익활동 이야기

법무법인 지평 **고효정** 변호사  
진행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

### 새내기 센추리클럽 고효정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듣다

지평과 두루는 2016년부터 연간 10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를 '센추리클럽'으로 선정하여 공익활동 활성화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5명의 변호사(김지형 대표변호사, 명한석, 박용대, 임성택, 권장영, 여연심, 최정규, 박성철, 박호경, 구나영, 구정모, 고효정, 김승현, 최명지 변호사, 정진 외국변호사(미국))가 10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수행하여 센추리클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 공익소송과 자문을 활발히 수행하여 자문그룹에서 공익활동을 독려하는데 모범이 되고 있는 고효정 변호사를 만나 공익활동 비결을 들어 보았습니다.

#### 올 한 해 어떤 공익활동을 했나요?

자문업무로는 배어베터에 대한 법률 실사, 사회적기업의 각종 계약서 검토 업무가 있습니다. 공익활동의 특성상 의뢰인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을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자문변호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소송사건도 진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평소 자문그룹에서 경험해보기 힘든 업무라서 법률업무를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의 내용은 결국 변호사로서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하는 '나 자신'이 항상 즐거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제가 변호사로서 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덕분에 업무에서 오는 괴로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 공익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공익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근히 소심한 성격 탓에 1년차 변호사였던 2016년에는 공익활동에 많이 자원하지 못했습니다. 자문그룹 변호사들이 잘할 수 있는 공익활동은 대체로 예비구성원 변호사 1명, 구성원변호사 1명이 진행했거든요. 변호사 업무를 제대로 익히지도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짐 덩어리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올해 초, 2016년 공익보고서에서 지평 내에서 공익활동을 연간 100시간 이상 수행한 변호사들의 모임인 '센추리클럽' 인터뷰를 보면서 자극을 받고 입사 전에 했던 다짐을 실천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실제로 공익활동을 해 보니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떤 점이 좋았나요?

자문그룹 업무는 배당이나 업무량의 예상이 쉽지 않아서 공익활동에 참여하기가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초 두루에서 대리한 지뢰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신청기각결정의 취소소송의 소장을 함께 작성할 기회가 있었는데, 소장작성 작업이 시작된 직후 새로운 업무가 진행되면서 참여를 많이 하지 못했고, 기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말아놓고 제대로 해내지 못하였다는 생각 때문에 부끄럽고 자괴감도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자문그룹 변호사님들이 공익활동을 주저하게 되지는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제 부끄러움과 자괴감, 그리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두루 변호사님들입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늘 함께 채워주셨고, 제가 흥미를 가질만한 사건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자문그룹 소속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면 두루 변호사님들과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INTERVIEW

## 05 공익활동 이야기

법무법인 지평 김판수 · 강민제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김용진 변호사, 루트임팩트 박연경 · 최지훈 매니저,  
 빅이슈 안병훈 대외협력국장  
 진행 사단법인 두루 이태영 변호사

협력 단체로부터  
 지평과 두루가  
 나아갈 길을 듣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던 12월의 어느 밤,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루트임팩트 멤버들과 지평, 두루의 변호사들이 뜻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인 '루트임팩트'가 소셜 벤처와 자문 변호사들의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평 임성택, 김판수, 강민제, 이유진 변호사, 두루 김용진, 최초록, 이태영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루트임팩트 담당자, 참여 기업 및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 헤이그라운드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김판수** :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어떤 기업이 사회적기업인지, 사회적기업은 어떤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강민제** : 성수동 일대 야경이 보이는 멋진 곳에서, 다양한 입주사 직원분들을 만나 그동안 접해볼 수 없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기대보다 즐거웠습니다. 연말이라 다소 업무가 밀린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갔으나, 루트임팩트 분들과 입주사 분들에게 도리어 좋은 에너지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이유진** : 개인적으로 소셜 벤처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프로보노 활동을 할 때 대상 기업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참 컸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대상 기업 분들의 면면을 직접 대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더욱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성장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다시금 되었습니다.

**김용진** : 그동안 여러 파트너사들을 상대로 법률자문을 해왔지만, 이렇게 자문 변호사들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것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기 다른 영역의 일을 하고 있지만,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 이번 행사에 참여한 단체의 입장에서는 자문 변호사들을 만난 경험이 어땠는지요?

**안병훈** : 사회적기업가, 체인지 메이커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 어려움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때로는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친구 같은' 파트너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경제에 엄청난 자산입니다. 공익미션과 뛰어난 공감 소통 감각을 가진 지평과 두루 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번 기회가 참 감사했습니다.

### 이번 행사를 기획·진행한 루트임팩트는 어떤 점을 느꼈나요?

**박연경** : 저희가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기에 소셜 벤처가 당연한 상황과 감사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전달 드리지 못한 점이 늘 아쉬웠는데,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루트임팩트를 비롯하여 소셜섹터 내 플레이어들의 성장과 발전의 저변에는 지평과 두루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늘 곁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지훈** : 바쁜신 가운데 일곱 분의 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서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던 변호사들과 소셜 벤처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점도 뜻 깊었습니다.